
문서번호 : 15-10-사무-19
수 신 : 언론사 법조 및 사회부 기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발 신 :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제 목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험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전송일자 : 2015. 11. 2.(월)
전송매수 : 총 7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험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 일시 : 2015년 11월 2일(월) 오전10시 30분
- ◆ 장소 : 광화문 광장
-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이석범 변호사
 -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 송상교 변호사
 3. 의견서 낭독

-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의견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장관이 행정예고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하여,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담아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래 -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말기에 시행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폐지된 후 유신 체제 하인 1974년에 다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한 유신시대의 상징일뿐더러 세계적으로도 몇몇 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후진적 독재의 산물입니다. 단일 국정교과서는 지난 30년 넘도록 지속되었으나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강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 속에서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가 검정교과서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이 가져온 귀중한 성과였습니다. 정부가 검정교과서 수정 시도가 여의치 않자 다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부정하고 과거 독재시대로 시계를 되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

육제도의 중요한 내용인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장관의 고시 만으로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 교과서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사 교과서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헌재 1992. 11. 12.자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015년 유엔(UN) 인권이사회는 베트남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 "역사교과서는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베트남의 역사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검정제도'를 모델삼아 국정교과서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미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이미 '역사 국정교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만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전세계에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소수의 독재국가, 그리고 최근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고 비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단일한 교과서로 역사를 암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사색과 대화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며 여러 관점과 입장을 열린 사고로 생각해보고 지금 자신을 반추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역사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정부가 정한 획일적 내용 만을 암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역사 국정화는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온나라를 찢어놓고 국민을 갈등하게 하는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며 국정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부가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온 나라가 ‘역사전쟁’이라는 전쟁터가 된 듯 갈등이 폭발하고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민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원칙이 무색하게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리는 일은 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오히려 국민 전체를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2일

교수, 변호사 일동

[교수]

강경선 강사운 고영남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도형 김동철 김두식 김명연
김민배 김복현 김서중 김선광 김엘림 김 욱 김은진 김인재 김재완 김종서
김 준 김진석 김태선 김태준 김한식 김혜영 남구현 노중기 류동민 문병효
문준영 박광일 박거용 박상현 박병도 박병섭 박승룡 박영일 박지현 박찬운
박홍규 박홍원 변동명 배 현 백수인 백좌흠 서경석 석인선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주명 신옥주 신용인 심재진 양해림 엄순영 여태명 오길영 오동석

오문완 오병두 유병제 유제호 윤애림 윤영철 윤태웅 원동욱 이경주 이계수
 이규봉 이기훈 이동승 이무성 이병균 이병천 이상명 이상묵 이상수 이상영
 이세영 이영자 이영진 이영학 이용화 이원희 이은희 이재기 이재승 이종봉
 이호중 임순광 임재홍 임종진 장덕조 장덕현 장동표 장상환 장선미 전현수
 정경수 정병덕 정선기 정원지 정용길 정진상 정태욱 조경배 조승래 조승현
 조용만 조우영 조임영 조희정 주강원 진경환 진영종 채수환 최관호 최성만
 최영호 최유진 최정학 최철영 최한성 최홍엽 하상복 한상희 황상익 허정애
 (이상 130명)

[법률가]

강기탁 강대성 강문대 강백준 강새롬 강성현 강신관 강영구 강영상 강울리
 강은옥 강을영 강지은 강창우 강호민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구나영 구민희
 구현주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오훈 권정호 권철호 권태윤 권혁근
 길기관 김경민 김규동 김기남 김기덕 김기식 김기현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도윤 김도희 김동균 김두현 김명진 김묘희 김미경 김미정 김병욱 김병주
 김상배 김상은 김상훈 김석준 김선수 김선욱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진
 김성훈 김세희 김소담 김소리 김수정 김수환 김슬기 김승호 김양홍 김양환
 김연주 김영관 김영수 김영심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예니 김예림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용진 김용호 김 옹 김유정 김유정 김은철 김인숙
 김자연 김재용 김정선 김정인 김제은 김종귀 김종보 김종환 김주관 김주현
 김주혜 김준우 김준현 김지미 김 진 김 진 김진국 김진수 김진형 김차곤
 김차연 김태근 김태욱 김태종 김태형 김택수 김필성 김하나 김한주 김향훈
 김현우 김현승 김현임 김형중 김형태 김혜림 김호철 김화섭 김훈규 김희수
 김희진 나연찬 남상철 남성욱 남호진 노승진 노혜성 노희준 류경렬 류명희
 류신환 류정선 류한호 문덕현 문병윤 민병덕 민승현 민태식 박갑주 박경찬
 박계성 박공우 박구진 박근덕 박다혜 박대욱 박동민 박동훈 박미혜 박민제
 박삼성 박상혁 박상현 박상훈 박선화 박성하 박애란 박영규 박영식 박일지
 박재형 박정식 박종문 박종욱 박주만 박중용 박지웅 박진속 박창범 박치현
 박태원 박현근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배광열 배진아 백승현 백신욱 백주선
 서경원 서기원 서동용 서동후 서무송 서범수 서선영 서은경 서중희 서창호

서채란 설창일 성창익 소라미 소삼영 소윤수 손명숙 손명호 손준호 손충환
 손혜진 송기오 송기호 송두환 송상교 송아람 송영섭 송재섭 송해익 송현순
 신명근 신상훈 신선아 신성수 신수경 신영훈 신윤경 신장식 신정재 신지현
 신훈민 심재섭 심재환 심지마 심지민 안병용 안지훈 안현지 안희철 양규응
 양 범 양제상 양창영 양희석 여연심 여영학 오경민 오동현 오성희 오세범
 오세정 오엘림 오영중 오윤식 오해철 오현정 오현희 우은혜 우지연
 원민경 원창연 위대훈 위은진 위석현 유신혜 유정동 유진범 유진빈 유태영
 육심원 윤복남 윤세종 윤영석 윤영태 윤인섭 윤중현 윤지영 윤한철 이강혁
 이강훈 이강훈 이광교 이광진 이광철 이경우 이기연 이길수 이남진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동구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명춘 이문우 이미숙 이미연
 이민종 이병주 이보람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 석 이석범 이선경 이성우
 이세라 이세호 이소영 이영기 이예모 이용우 이원구 이원기 이원호 이은수
 이은숙 이인람 이재균 이재화 이정일 이정환 이종호 이종희 이주연 이주한
 이준길 이준형 이지연 이지영 이진호 이찬진 이창환 이하정 이한길 이한본
 이한석 이현묵 이현욱 이 혁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범 이형준 이해정
 이회덕 이흥영 이희영 임동찬 임선아 임선영 임성택 임순광 임승규 임애리
 임영환 임자운 임재성 임제혁 임 판 장경수 장경환 장덕규 장덕천 장서연
 장석우 장석재 장영석 장완익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지혜 장한별 장홍록
 전경능 전경령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다운 정범성
 정병욱 정상규 정소흥 정수인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은영 정인기 정재성
 정재원 정재형 정종원 정준영 정치균 정혜민 정혜선 정홍철 정희일 정희영
 조규훈 조덕상 조동환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세화 조숙현 조승우
 조아라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일영 조정래 조지훈
 조현주 조형수 진재용 차규근 차승현 채다운 채영호 천낙봉 천지선 최강욱
 최건섭 최병모 최석봉 최성주 최영도 최용근 최용문 최용성 최윤수 최은배
 최일숙 최정은 최종연 최지희 탁경국 탁선호 표재진 하성협 하주희 한경수
 한명욱 한승헌 한택근 한필운 현근택 현지원 홍용호 홍정훈 홍현수 황규표
 황선택 황준협 황필규 황희석 하귀남

(이상 474명)